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복룡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대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트든생활제초	40 월화 드라마(블러드)(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네트워킹 특선 초초초 55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00 그린실버 고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12 40 채널A 뉴스토크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55 이웃집 찰스(재)	10 MBC 정오 뉴스 20 국회 인사청문회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유기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00 SBS12뉴스 45 국회 인사청문회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유기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1 5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00 쿠러기 식사교실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2 00 직언직설	00 국회 인사청문회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엄마의 탄생(재) 45 후토스	00 MBC 뉴스 10 내사랑 똥 40 문화 4색	00 SBS 뉴스 10 특집다큐 (뚝뚝한 적정 기술, 히말라야에 온정을 전하다)
4 20 쾌도난마	00 KBS 뉴스4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자동차부채상 위키 40 TV유치원 풍다공	25 MBC 일일특별기획 (임구정 백야)	00 최강탈출에이트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 그래픽	10 외계가족 줄리폴리 40 동물의 세계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스페셜 15 KBC지니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인순이의 토코드라마 (그대가 꽃)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복룡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감미)
8 10 나는 몸신이다(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30 반란동굴왕(단편) 55 위기탈출 남북편	55 MBC 일일특별기획 (임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블러드)	00 월화 특별기획 (빛나거나 미치지거나)	00 월화드라마 (중문으로 들었소)
11 00 실화극장 그날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간다큐 (그곳)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20 모쿠드라마(싸인)(재) ①:30 독한인생 서민잡(재)	20 해외걸작드라마(닥터 후) ①:10 해외걸작드라마 (삼총사)(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토크원 현장보고(재) ①:25 다큐공감(재)	15 MBC 뉴스24 45 싹!나는세상 스페셜 ①:45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테마 스페셜 베스트



지난 4일 방송된 SBS TV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 13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3.8%(이하 닐슨코리아)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대인 MBN '나는 자연인이다' 130회는 전국 기준 5.04%(케이블·위성·IPTV 통합)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상파와 유료플랫폼 시청률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나는 자연인이다'가 톱스타 현빈 복귀작을 밀어낼 정도로 인기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합편성채널에 교양 프로그램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평일 지상파 예능은 물론이거니와 드라마까지 제철 정도로 큰 호응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처음엔 새내서도 큰 불신" ... 종편 교양 최초로 3% 돌파 = '나는 자연인이다'는 두메산골이나 외딴 섬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어렵게 찾아내 그들의 삶을 보여준다. SBS TV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종종 나올 법한 이들의 삶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기획해보자는 제안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 22일 '김용호 할아버지' 편이 처음 방송됐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30년째 산에 사는 김 할아버지 이야기가 방송됐을 때 "사내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이 컸다"는 게 연출자인 백봉기 PD의 설명이다.

백 PD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인공이 일반적인 정규 교양 프로그램에서 볼 법한 사람들이 아니기도 했고 무슨 이런 방송이 다 있느냐는 반응이 많았다"고 밝혔다. 1회에 이어 2회 시청률도 종편으로서 높은 1.8%대를 기록한 것이 방패막이였다. 이후 방송이 계속될수록 애청자들이 늘었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청률은 2%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지난해 4월 '무인도 섬지기 최준석' 편에서 종편 교양으로서 처음 3%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평균 시청률은 5.02%로 집계됐다. 프로그램이 4년째를 맞은 가운데 이제는 자연인 자체가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자연인들과 함께 사글사글 지내며 공감하는 도시인, 개그맨 윤태과 이승윤은 '경로당 아이돌'로까지 불린다고. tvN 'SNL 코리아'에서도 패러디 방송 '나만 자연인이다'를 내보내기도 했다.

◇'삼시세끼' 부럽지 않은 '나는 자연인이다' = 자연인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서, 가족과 불화를 겪어서, 아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친구를 잃고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산과 섬으로 들어온 이들이다. 자연인들의 사연에 마음 아파하기도, 번잡한 일상은 훌훌 털어버린 채 자연에 파묻혀 사는 이들을 보면 은근히 부러움이 인다는 게 많은 시청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프로그램의 꾸준한 인기는 이렇게 현대인들을 공상에 빠지게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휴먼 다큐멘터리를 넘어서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데는 소소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도랑에서 미꾸라지를 잡거나, 벌벌 과일을 따다가 술을 담그고, 가마솥에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양고기와 대추 썬 대파를 썰어 꼬치를 만드는 자연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장안 화제인 tvN 예능 '삼시세끼'와도 통하는 부분이다. 윤태과 이승윤의 공도 크다. 도시인에게 무뎠던 사흘째가 되면 어김없이 "나랑 여기서 살자"고 말하는 자연인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사람이 어울려 산다는 것의 의미도 생각하게 된다.

◇산사나이·나무꾼도 마다치 않는 제작진 = 프로그램 성공에는 자연인을 발굴하고자 산사나이나 나무꾼이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제작진의 노력이 있다.

PD 4명을 주축으로 한 스태프는 직접 산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행정 당국이나 부동산에 연락해 외진 지역에 거주 인구가 있는지 수소문한다. 마을 이장들에게 전화하는 일도 다반사다.

"거기에 사람 하나가 살긴 사는데..."라는 말 한마디만 들리면 바로 지목된 지역으로 찾아가는 게 백 PD의 설명이다.

백 PD는 "단번에 촬영에 응하겠다고 하는 자연인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산에서는 땀값이 정말 중요한데 자연인과 말을 트려고 산에서 나무하는 일도 많다"고 밝혔다.

"제작진도 지금까지 올 줄이라고는 생각이 못했습니다. 원시 삶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원래 취지는 문명을 뒤로 한 채 어렵더라도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자는 것이었어요. 이야기 범위를 더 넓혀보려 구상 중입니다."

EBS1

05:00 EBS 생활 영어	09:40 토크쇼 부모 - 고수다	14:45 미앤마이로봇	19:30 EBS뉴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크 오늘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30 시계마을 타기독!	20:50 세계테마기행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미술 탐험대	(피키타, 카람코람 하이웨이)
07:30 출동! 슈퍼강(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봄이 노는 만경강)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굼디와 친구들(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8:20 두다다쿵(재)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7:00 Why - 최고다! 호기심까지	(중앙아시아 살아남은 야생의 기록)
08:35 Why - 최고다! 호기심까지	13:40 즐거운 수학 EBSMATH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2:45 달려라여우
08:50 굼디와 친구들	13:50 꼬마 율학자 율고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7:45 꼬마버스 토요	(아시아 풍속기행)
09:2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24:05 EBS 인문학 특강
09:35 이밤 스페이스 정글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	12:15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재)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50 " <국어 4-1>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3:05 " <고교 Basic Grammar-junior>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 <국어 5-1>
01:40 " <문학-알짜개념>	14:00 2016 수능특강 <문학-알짜개념>	08:30 2015 9-7급 공무원 시험 문제풀이 강좌	16:50 " <국어 6-1>
02:30 " <미적분1>	<남공민인 국어 B형>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1
03:20 " <수학 1>	14:50 올림포스 <문학-알짜개념>(재)	09:10 TV 중학 <국어 102>	18:00 TV 중학 <국어 506>
04:10 " <미적분1>	15:40 " <미적분1>(재)	09:50 " <수학(상)>	18:40 " <수학 3(상)>
05:00 뉴탐스런 <물리>	16:30 " <수학 1>(재)	10:30 " <역사 1>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06:00 " <생명과학>	17:20 " <미적분1>(재)	11:10 " <국어 304>	20:00 EBS 기획특강
06:50 " <동아시아사>	18:10 뉴탐스런 <물리 1>(재)	11:50 " <수학 2(상)>	20:50 EBS 기획시리즈
07:40 " <윤리와 사상>	19:10 " <생명과학 1>(재)	12:30 실천 취업가이드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08:3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13:10 중학학습비법 특강 <국어1>	22:00 중학학습비법 특강 <국어3>
09:20 " <심주석의 수학 1>	20:50 2016 수능특강 <수생의 만점불패 영어>(재)	13:50 " <국어2>	22:40 TV 중학 <국어102>
10:10 2016 수능특강 <수생의 만점불패 영어>(재)	21:50 " <심주석의 수학 A>(재)	14:30 " <사회1>	23:20 필독 중학 <사회1>
11:00 " <심주석의 수학 A>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5:20 만점왕 <국어 3-1>	24:00 알기초 중학 <수학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9일 (음 1월 19일 甲申)

48년생 미지않아서 길조가 상충할 것이니 수용할 대비를 하라.	42년생 순간적인 격정을 생상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54년생 종교 나뉘는 따질 계제가 아니다. 66년생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78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에 정답이 있음을 간파하지 말아야겠다.
60년생 원만한 찾아낸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72년생 진실함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84년생 준비하고 있으면 적에게 용처가 나타나리다.	행운의 숫자 : 47, 88
49년생 탄력이 붙으면서 증가 일로에 놓이리다. 61년생 공든 탑이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73년생 변화에 따르는 상심감이 크겠다. 85년생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9, 67
38년생 돈이면 다 해결 될 문제이나. 50년생 외형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 62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속에 행운이 따르리다. 74년생 겉가지를 버리고 몸통을 끌어안아 보자. 86년생 보탬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53
39년생 압박하였다. 51년생 새로운 국면 진입의 계기가 되리다. 63년생 음식은 갈수록 즐기고 갈수록 보태지는 법이다. 75년생 가까운 곳부터 손질을 하는 것이 옳다. 87년생 서두르면 손해 보는 일이 많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34
40년생 일이 뜻과 같이 되리다. 52년생 비록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점차 큰 이익이 될 것임을 알라. 64년생 순식간에 벌어지고야 말 것이다. 76년생 힘은 들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리다.	행운의 숫자 : 35, 44
41년생 지나치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53년생 과욕의 크기만큼 잃을 수밖에 없다. 65년생 순환하면서 상생의 기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77년생 시류에 따라 변하는 인심에 대해 크게 한숨을 쉬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5, 48

“소중한 것 잃는다면... 촬영 후 후유증 남아”

12일 개봉 '살인의뢰' 출연 김성균



2013년 선풍적인 인기를 끈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반전 매력의 하숙생 '삼천포'로 변신하긴 했지만 그동안 영화에서 배우 김성균(35)이 연기한 캐릭터는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는 쪽에 가까웠다. 단발머리 휘날리며 강렬하게 등장한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에서는 폭력 조직의 행동 대장이었고, '이웃사람'에서는 소름끼칠 만큼 섬뜩한 살인마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연쇄 살인범에게 아내를 잃는 한 가정으로 분했다. 오는 12일 개봉을 앞둔 영화 '살인의뢰'에서다.

최근 삼천포에서 만난 김성균은 "문득문득 촬영장에서 겪었던 것들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소중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소중한 것을 잃으면 어떨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2010년 결혼한 김성균은 현재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오는 8월에는 셋째도 태어날 예정이다.

"소중한 것을 잃는 게 어떻게 상상하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연기를 하기 위해 제가 겪는 것도 이리든 저리든 얼마나 더 끔찍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웃사람'을 마친 뒤 "달걀비를 해 먹으려고 닭을 손질하다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순간 '뭣지' 했던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동안 작품이 끝난 뒤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힘든 적은 없었던 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고 한다. 그는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이 내 경험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며 "배우들이 (작품이 끝난 뒤) 역할에서 못 빠져나와 우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성균이 연기한 극 중 중형은 착하고 평범한 은행원이다. 하지만 믿었던 아내를 연쇄 살인마 조강진(박성웅)에게 잃은 분노에 현장 감중에 나선 조강진을 향해 흥기를 들고 달려들다 경찰에 제압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견디다 못해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기도 한다.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조강진에게 복수를 하고자 3년간 칼끝을 버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저도 남작배우이다 보니 강건과 비등하게 치고받는 장면을

찍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복근을 딱 만들고 나타나 2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그런 것 하고 싶었어요. 하하. 하지만 승현은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나 전직 갑장수도 아니고 그냥 은행원이었고 유약한 사람이었죠. '올드보이'의 오대수처럼 15년간 갇혀 있던 게 아니라 3년간 집에서 보통의 사람이 준비해 온 과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영화는 1997년 이후 사형제도가 집행되지 않고 있어 강건과 같은 연쇄살인범이라도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현실을 피해자의 가족과 경찰의 입을 통해 비판하며 사형제도의 존재 문제를 화두로 끄집어 낸다.

"작품 횟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수록 거짓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범죄와의 전쟁' 때 사람들이 저를 강제로 봐주신 것은 제가 잘했다기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서 속이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점점 속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사전 정보가 많아지니까요.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제 거짓말이 잘 속아줬으면 좋겠어요. 하하."

-연출뉴스